

보도 희망 일시	제한없음(즉시)
문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문지석 전화: 880-2101, 이메일: mnjsk@snu.ac.kr

배포일: 2025.2.12(수)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 -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의 방향'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센터장 박배균)는 2025년 2월 27일(목) 아시아연구소(304호)에서 '축소국가에서 도쿄의 공간 재조정하기-도쿄의 불균등한 도시 부흥 전략, 오사카를 넘어 일본 전역의 문제로(Rescaling Tokyo in a Shrinking Country-The unbalanced urban renaissance of mature Tokyo, from Osaka to Japan's problem?)' 를 주제로 2025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한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프랑스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라파엘 랑기용-오셀 박사가 발표를 하며, 사회는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EHESS)의 중국·한국·일본 연구센터 디렉터인 발레리 줄레조 교수가 맡는다.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배균 센터장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 이번 세미나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과 공간 재조정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이 일본 전역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02년 도시재생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도쿄 중심부는 고층화, 복합 개발, 도시편의시설 개선 등의 과정을 통해 대대적인 도시재생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직면한 인구 감소 및 지방 도시들의 쇠퇴와는 대조적으로, 도쿄가 자본, 인구, 일자리, 부동산 개발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

는 도쿄 도시재생 정책의 주요 양상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이 도쿄 및 일본 전역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도쿄가 일본 경제와 지역 균형에 기여하는지, 혹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 발표자인 라파엘 랑기용-오셀(Raphaël Languillon-Aussel) 박사는 도시지리학자이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프랑스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및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2015)은 일본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도쿄 중심부의 부동산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후 도시계획의 비판적 정치경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사례는 일본, 프랑스, 스위스에 걸쳐 있다.